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4. 11.11 (월요일)

**104일 간의 여정 끝, 막 내린 제2회 HLMUN**  
**- 지난 5일 국제회의관서 진행 -**



지난 11월 5일 화요일, 104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제2회 HLMUN 공식 총회가 열렸다.

이날 공식 총회는 우리 대학 국제회의관에서 오전 9시부터 약 오후 5시경까지 진행됐다. 본 총회는 안정현 글로벌학부 교수의 개회사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어 허영 춘천시 국회의원과 표창원 융합과학수사학과 특임교수의 축사와 격려사 영상이 이어졌다.

이후 이한길 제2회 한림모의유엔협회장의 개회사를 끝으로 기초 연설문 발표가 시작됐다. 특히 그는 “이번 총회는 청년들이 국제 사회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림모의유엔이 몇십년 이상을 바라보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참여자들을 독려했다.

모든 대사단의 ‘기후변화 난민의 보호 및 정착을 위한 범 세계적 논의’를 의제로 한 기초연설문 발표가 끝난 뒤, ‘기후난민의 정의’를 주제로 결의안 A 소개 연설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그 결과 방글라데시의 결의안만이 가결됐다.

오후 1시경 시작된 결의안 B의 주제는 ‘기후난민의 경제적·기술적 지원 방안’이었다. 결의안 A와 마찬가지로 비공식 및 공식회의를 수차례 넘나들며 대사들의 열띤 질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결의안 B는 모두 부결됐다.

모든 회의가 마무리되고 난 후 시상식이 진행됐다. 최양희 총장 명의로 표창장이 주어졌으며, 대상은 방글라데시 대사단 오정민(융합과 학수사학·21), 고효진(글로벌비즈니스전공·23), 윤가현(글로벌비즈니스전공·23) 학우들이 수여받게 됐다. 이와 비롯해 최우수상 미국, 우수상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과 중국 대사단에는 각각 장려상이 수여됐다. 수상의 영광과 함께 제2회 HLMUN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담당 부서 제2회 HLMUN PRESS팀	팀장	총괄	우연정
	팀원	기사 작성	김서희
			윤주희
		가사 번역	왕혁비
			반월월
한림대학교 총학생회 <a href="mailto:hallym38th_run@naver.com">hallym38th_run@naver.com</a>			
한림대학교 제2회 모의유엔협회 <a href="mailto:hallymmun@gmail.com">hallymmun@gmail.com</a>			